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5:27-32. 40-41	제2독서	요한묵시록 5:11-14	복음	요한 21:1-19
--------	------	---------------------	------	---------------	----	------------

◎ 말씀 <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래의 본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자, 다른 여섯명의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고 물으로 올라오자, 예수님은 미리 준비한 빵과 구운 생선을 허기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며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들을 잘 볼보아라.” 하시며, 당신의 양떼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면 배반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며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감수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라질 것입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 7일(화)	부활 제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840.00 \$ 822.00
5월 8일(수)	부활 제3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180.00 \$ 45.00
5월 9일(목)	부활 제3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25.00 \$ 277.00
5월 10일(금)	부활 제3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기타수입 주일학교	\$ 693.00 \$ 20.00
5월 11일(토)	부활 제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30분	교구2차헌금 합 계	\$ 236.00 \$ 3,138.00
5월 12일(일)	부활 제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5명 성인: 154명
교무금 봉헌자	김광희(5-6월)김선식(3-4월)장현철. 김에릭. 임상일. 지영욱(4월)현익균. 엄희수(5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판문점 선언 1주년 메시지 `평화의 새 시대 열릴 것`

지난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27일 저녁, 두 정상에 만났던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념행사에 보낸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노력 평화의 영원을 담았고 하느님께 한반도의 평화를 간청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나의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가 일치, 대화, 형제적 연대에 기반한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화합과 우호를 추구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판문점 선언 기념행사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상메세지에서 강조한 것은 비록 지난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지만, 희망을 갖고 인내심과 끈기있는 평화의 노력을 당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북한측의 불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단독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을 직접 찾지 않고 영상으로 메세지를 전달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오르기에 천천히 오시는 분들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잠시 숨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 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국부자.마리아	연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박원상.토마스
연	김용옥.세레나	장석자.요한보스코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장석자.요한보스코	생	전정옥.율리안나의 가정	셋별 Pr.

간장종지

◎연애편지◎
 그 사람은 양복주머니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였다.
 ‘...나의 사랑 데레사’ 그 사람의 얼굴은 잠시 황홀해졌다. 50년 전의 연애편지였다.
 그분의 말씀은 오래된 연애편지이다.
 결코 바래지 않는- 바래지 않은 걸은 바랬으나 결코 속은 바래지 않는- 않은...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